

**복음으로 시작 (사도행전 1:1-8)**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속에서 예배에 자리로 오게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이 시간을 갖는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요 237나라 살릴 증인들인것을 기억하자.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항상 듣게 되는 말씀의 핵심이 내가 누구인지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밝히고, 그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알게 하고 누리고 승리하고 정복하라고 결론 내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안되게 한다. 그런데 세상이 절대 복음이 아닌 이유는 언제든지 3. 6. 11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이미 잘못 각인 된것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다.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도 참된 행복을 찾을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영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루어도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여 영적문제에 걸려 개인과 가정, 자녀문제로 연결되어 결국은 방황하다가 인생을 포기 하게 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배경으로, 세상을 배경으로 한 사단의 악한 장난이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답을 얻고 돌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복음은 모든 인생에게 답이고 힘이고 심이다. 그것은 많은 것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한가지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수십년동안 들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들어야 한다. 또 영원히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것이 답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누림의 시작이다.

오늘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언약 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응답 받는 분들도 계시다. 그런데 복음안에 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전도하기도 힘들고 사람 대하는 것이 힘든 갈등 속에 있는 분도 계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 앞에 있는 것 다 버려야 되니까. 마치 앞에 있는 것은 다 실패한 것 같으니까.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사실상 우리는 창세기 3장과 싸우는 것이다. 창세기 3장은 자꾸 나 중심으로 살게 한다. 내가 아니면 자꾸 서운하

게 하거나 빠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답이다.

창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자꾸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창세기 6장을 터뜨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6:14 방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실력과 인격이 있어도 물 때문에 다 멸망받는다. 그러나 높고 힘이 없어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은 다 살았다. 방주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신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임을 고백하기 바란다.

창11장 온 세상이 언약을 놓치고 성공중심으로 살다가 무너져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완전한 언약을 회복한 제자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룬 창12:1-3 언약중심으로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오늘 종교와 복음을 간단하게 분별할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것은 다 종교이다. 여기서 주신 답이 복음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바리새인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복음의 훈련과 실천만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종교는 이와같이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는 창3, 6, 11장 너무 가까이 있기때문에 선명한 복음이 아니면 구별이 안되고 오히려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영적바리새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된 복음훈련과 복음실천만이 그들을 살리고 도울 수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증인이 될 것이다.

**1. 과거에 묶이지 말라**

우리의 과거는 시간적,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복음이 기준이 되어 복음을 깨닫고 누리기전, 은혜를 더 깊이 받기 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빨리 받아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복음을 받아 영적문제를 치유를 받는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창3장, 6장 11장 체질이 우리의 과거이다.

이런 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복음은 여기서 자유, 해방, 누림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계속 갱신해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은혜를 체험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하게 단호하게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을 주의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바리새인, 게으른 자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 하는 것은 잘 하면서 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빈약한 것이다. 주로 사역자나, 종직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여기서 빠져나와 오늘도 말씀듣기, 기도하기, 전도기획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새가족과 렘넌트들은 어떤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 문제로 생긴 상처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답이 없으면 반드시 상처에 걸려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화나고 지금도 분노를 해결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복음은 여기에 대한 답이므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위기와 갈등속에서 뱀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약점, 고난, 어려움을 통해 오해, 슬픔, 미움, 원망, 상처를 주려는 근본문제에서 완전 해방되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못누리면 반대로 영적성장이 멈추어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마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복음을 누릴수 있는 실제적인 나의 복음을 찾아내서 과거에 묶이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 2. 현실을 누리라.

누리라는 의미를 잘 못 이해를 하면 내가 가진 육신적인 것, 배경,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육신의것은 그 어떤 즐거움이라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이 나라에 와 있고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자리까지 인도 하신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현실을 누릴 것인가는 복음을 가진자는 그 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실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3.9.3의 기도의 흐름속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3시대의 주역으로 기도생활을 매일 실천하는 나의 기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나의 기도가 어떤 분은 언약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분은 구원의길 목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 어떤분은 3.9.3, 누리는 기도, 또는 새벽기도, 성경읽기.일수도 있다.

복음가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영적활동은 지금 현실을 승리하고 정복하기에 충분하니 지속 하시고 확신을 가지는 누림이 되시

기를 바란다.

성경에도 렘넌트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현실에서 복음을 최고로 누린 것을 참고하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고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문제, 환경, 위기, 갈등, 무능력등이 오히려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절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위기와 갈등에서 빠져나오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거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그 현실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응답이 Heavenly Talent 이므로 평생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나에게 펼쳐진 환경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지금 위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서 반드시 승리하여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한다.

## 결론

과거에 묶이지 않는것 창3, 6, 11 문제를 해결 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속에 있어야 가능한데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를 하면 절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현실을 누리는 것은 모든 문제, 환경, 위기, 갈등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이 각인된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에 확신을 가지고 더 깊이 누리게 될것이다.

오늘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누리고 말씀성취를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만의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초대교회는 40일, 10일 이었다. 새가족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집중의 시간을 찾아서 새벽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실천하게 된다면 반드시 3단체를 능가할 힘이 나타나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8절까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시작을 하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한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한다.